현대 교회와 목사들을 향한 1ㅁ가지 고소장

성경말씀: 마13:47-50

가끔씩 생명의 말씀사 웹사이트. 신간, 베스트셀러를 살펴본다.

10일 전에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발견, 주문 곧바로 읽고 150권 주문, 교회 중요 직책 맡은 분들 1권, 성도들에게 판매

폴 워셔: 1961년생, 이 책은 2008년 애틀란타 집회 설교, 한 마디로 목사들을 향하 고발장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목사, 전도가 많다. 폴 워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장로교 위주의 교회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목사 등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 맥아더, 워셔 등은 극도의 칼빈주의, 로드십 구원을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그런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다만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대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명함, 그래서 소개함

새해 들어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1년 전 이맘때에 비해 200명 이상이 늘어났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속으로는 염려도 된다.

사랑침례교회는 무조건 성도들 숫자를 늘린 데 연연하는 교회가 아니다.

무조건 수가 는다고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가면 진리로 인해 전 인간이 바뀌어야 한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고상하고 아름다고 능력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함을 믿고 가르친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믿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이런 교회를 하려면 현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워셔의 책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기소장: 영어로는 indictment, 보통 검사의 공소장,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피고인의 이름과 죄목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공소장의 피고인 현시대 교회와 목사들

공소 내용: 10가지,

1.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2. 하나님에 대한 무지, 3.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5.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6.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7. 교회의 권징 부족 8. 구별됨에 대한 침묵 9.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김

10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

워셔의 말

의도 파악 중요, 들어가는 말 소개

오늘 제게 커다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부흥과 개혁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외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해 이 기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기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다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모든 문제에 대해 다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단순히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자명한 성경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르짖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약점들로 고군분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소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소장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기소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현대 교회를 둘러보며 성경과 비교해 보니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마르틴 루터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못 박힌 95개 조 반박문 같은 종교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탓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에 분노를 느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건방지다고 비난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방진 적도 많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을 핑계 삼아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며 대답할 질문은 '전달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참인가, 거짓인가?'입니다. 이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외치며 환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1.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지난 수십 년간 성경의 영감과 관련해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과 무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유주의 성향의 교파에서는 분명 많은 싸움을 치렀을 것입니다. 성경을 위한 싸움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 해도, 아직 반밖에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대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는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만을 묻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소위 사회 과학과 문화 연구를 모두 들여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사회 과학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사회 과학이 우리의 교회와 전도와 선교학에 대단히 깊게 침투한 탓에,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딤후3:17, 모든 선한 일,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실행에 충분하다.

2.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때로 저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는 합니다. "글쎄요, 충분히 생각하고 내리신 결정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묻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니,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부탁하신 주제가 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 달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를 하실 곳은 교회고요. 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교하면, 가장 훌륭하고 오래 출석한 교인 중 몇몇이 일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있고, 스스로 만든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교하는 집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이 언제입니까?

목회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 달 시간을 들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매주 가르치는 내용 중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관련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라!

3.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착각: 방언, 뒤로 넘어지는 것, 만사형통, 성령 집회

요16:8,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이 접촉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 죄로 인한 고통과 회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죄에 대한 민감함이 매일 증가

죄들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것 없이 사영리 등 5분 설명하고 구원 초청하면 안 된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목사와 교회가 죄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가르쳐야 한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워셔의 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복음에 무지하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에 대한 것이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고 선포하는가?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여러 가지 시리즈 설교, 구원과 가정/결혼에 대한 시리즈가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다.

폴 워셔 회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회심하는 수간의 우리의 결심이 아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맺히는 열매이다. 올바른 가정생활, 언어생활, 옷 입기, 인사하기 등부터

5.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하는 사영리 식 구원 초정을 반대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참으로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 인새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겠네요.” 사람을 파괴하는 길

지난 20년 이상 가장 크게 이것을 외친 사람, 본인이 희생자

전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마10:28을 선포해야 한다.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미국의 다수의 침례 교회들, 설교 후 5분 상담한 뒤 새 신자 카드 작성하게 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지 말라.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

6.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다. 구원받은 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현시대의 복음 실종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가득하다. 민주주의 식 투표를 하면 성경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간다. 세속적인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에서 공예배로 모일 때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인가? 록 음악의 광란장인가?
예배의 핵심은 설교, 전체 예배 시간의 3분의 2는 되어야 한다. 1시간 예배면 40분은 되어야 설명 가능, 20분 설교
교회는 사람을 훈련하는 장소이다. 훈련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7. 교회의 권징 부족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든다. 사랑의 매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권징해야 한다.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을 망치는 것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마18장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권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교회에 악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권징해야 한다.

8. 거룩히 구별됨에 대한 부족

이 시대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세상과 구별됨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가 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성경의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적용된다.
죄가 죄임을 선포하지 않는다. 동성애, 공산주의/사회주의 좌파 그리스도인 No!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기고 반대로 가야 한다, 죽은 고기만 물에 휩쓸려 따라간다.

9.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무시함

아이들을 성경의 원칙대로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다 맡기면 안 된다.
교회 학교는 최소한의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에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린다. 1시간 40분 동안 아무 문제 없다.
같은 찬송, 같은 기도, 같은 설교, 오후에 흩어져서 성경 공부, 좋흔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와 국가에 소망이 있다. 아이들을 부모가 교육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10. 공부하지 않는 목사

딤후2:15
목사는 목자이다.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가? 성경은 두꺼운 책이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한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 설교를 가르치는 책들과 다른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매일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다 할 수는 없다. 필수불가결한 것을 빼고는 다 위임하고 말씀 연구
폴 워셔의 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봐라. 100미터 달리기 선수. 5살부터 25살까지 9초 대로 띠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연습, 연습, 연습, 9초를 위해 죽어라고 연습
그러면 목사는 영원을 위해 얼마나 연습해야 하는가?

결론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표준이 있으므로 노력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